

필라델피아 한인성당, 하느님 사랑 주제로 대림절 의미 찾아봐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한인 천주교회(주임 김순진 요셉 신부)는 대림절을 맞아 '하느님 사랑' 주제로 조재형 가브리엘 신부(미주가톨릭평화신문 사장)의 대림 특강을 지난 2일 가졌다. 5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특강에 신자 100여 명이 참석했고 조 신부의 열띤 강의는 구수한 사투리와 유머를 버무려 맛깔스럽게 펼쳐졌다.

조 신부는 대림 제1주일은 기다림, 제2주일은 회개, 제3주일은 기쁨, 제4주일은 탄생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성서에 나오는 인물과 사건을 예로 들며 우리는 대림절에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가를 묻고 대답했다.

“대림 제1주일 기다림은 크게 두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2천년 전에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를 기억하는 것이다. 고통과 절망 속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을 기쁨과 희망으로 이끌어 주셨다. 둘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사흘만에 다시 살아 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었음을 기

억하는 것이다.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내 시력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의 통찰력으로 가치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며 옳고 그름을 식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림 제2주일 회개,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VIP는 회개하는 사람이다. 하늘 나라에서는 선한 99명 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하신다. 예수님으로부터 VVIP 대접을 받는 조건은 내가 회개하는 것을 나의 행동으로 실천하며 사는 삶이다.”라고 강조했다. “대림 제3주일 기쁨,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일년 내내 그 자체가 대림이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잠시 후 사라지지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은 큰 희망이고 영원하며 그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선 늘 기도하라”고 말했다.

“대림 제4주일 탄생, 매일 매일 삶이 주님의 탄생이다. 예수님의 탄생이 다가와도 낯은 관행과 관습 안에 머물러 나의 기득권을 지키고 아픈 사람들에게 족쇄가 된다



필라델피아 한인 천주교회에서 팬데믹 이후 대면으로 열린 대림특강에서 조재형 신부가 강의하고 있다.

면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그때의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다”라며 섬세하고 강렬한 메시지로 특강을 마쳤다.

양경숙 명예기자